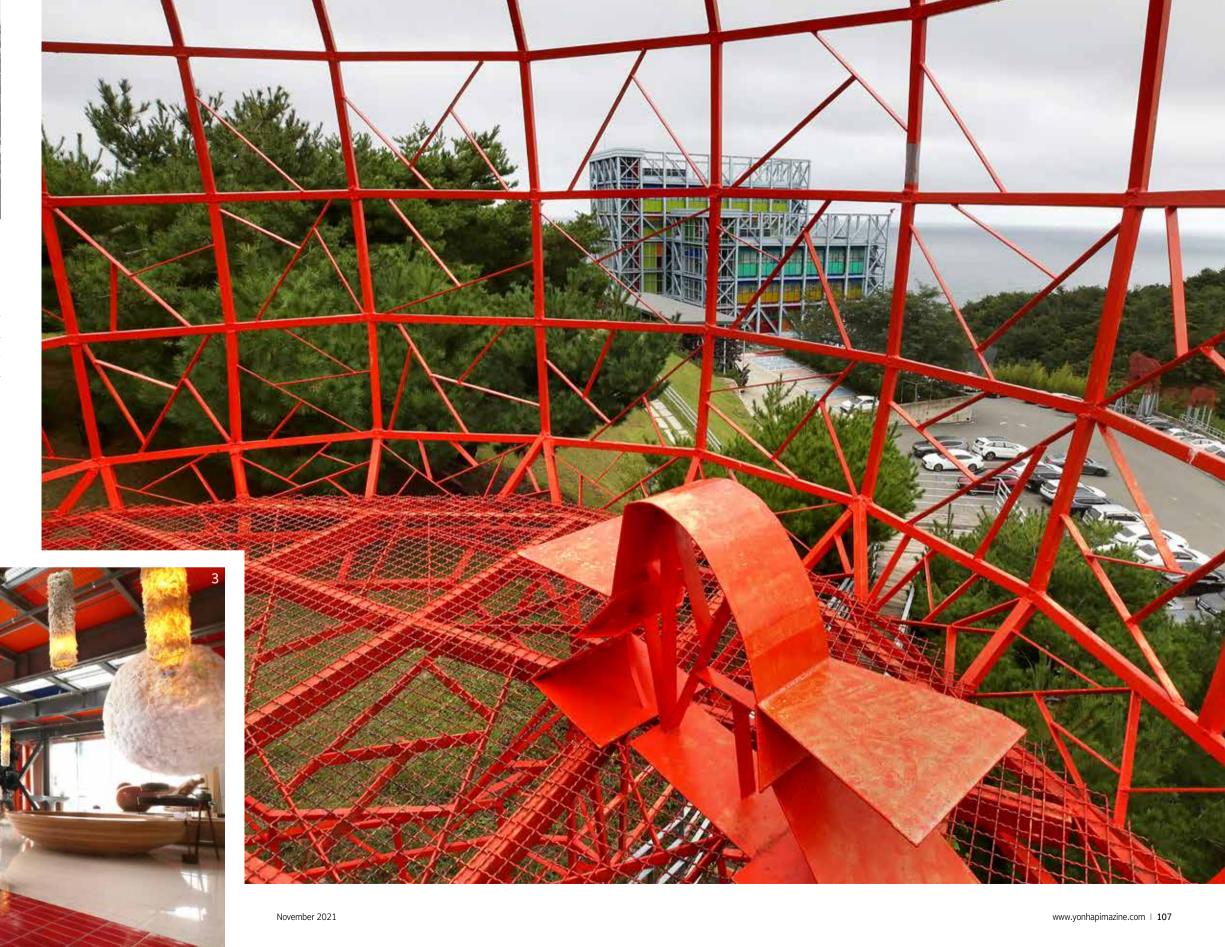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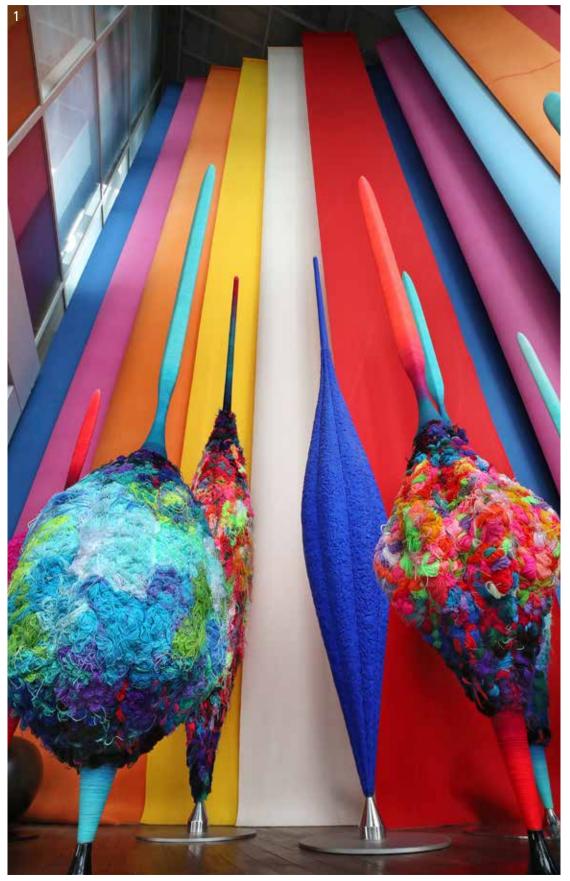
1하슬라아트월드 입구의 커다란 조형물 2 조각공원에서 바라본 하슬라아트월드 외관 3 경주 황룡사 9층 목탑을 제작한 장인 '아비지'의 이름을 딴 아비지 특별갤러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의 한적한 해안도로. 나지막한 산중턱에 알록달록한 원색의 건물이 우뚝 서 있다. 2003년 문을 연 '하슬라'는 고구려 시대 불렸던 강릉의 옛 지명. 강릉 출신의 설치 예술가인 최옥영·박신정 부부가 20년간 가꾸고 다듬어 온 복합문화공간이다. 거대한 대지를 캔버스 삼아 그 위에 그림을 그리듯 독특한 설치작품을 선보여 온 두 작가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매표소를 거쳐 전시실로 들어서니 낡은 악기를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듯한 설치작품이 먼저 눈길을 끈다. 수직으로 세운 피아노 위에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 그 옆에 푹신한 가죽소파처럼 보이는 의자는 사실 딱딱한 쇳덩어리다.



2





안쪽으로 들어가니 은빛 송곳니를 드러내며 포효하는 거대한 하마가 눈길을 끈다. 잘려 나간 하마의 등 위에는 검은색 의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메시지를 던지는 양태균 작가의 작품이다. 나무로 하마 모양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위에 스테이플러 칩을 하나하나 박아 완성했다. 고슴도치를 건드리면 가시가 돈듯 인간이 자연을 괴롭히면 자연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하마 반대편에는 수많은 볼록거울이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다. 무지개처럼 펼쳐진 원색의 천들이 흔 들리는 볼록거울에 비치면서 무한대의 이미지가 생성된다. 무한 한 자연의 에너지와 영속성을 표현한 박신정 작가의 작품이다.

이색 작품들로 가득한 이 공간은 하슬라아트월드의 첫 번째 전시 실인 아비지 특별갤러리다. 경주 황룡사 9층 목탑을 제작한 백제 의 장인 '아비지'의 이름을 딴 전시실이다. 창밖 너머로 보이는 아 름다운 바다 풍경이 작품들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November 2021 www.yonhapimazine.com | 111



1, 2 피노키오 박물관으로 향하는 원형 통로, 피노키오가 고래 배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형상화했다. 3, 4, 5 피노키오 박물관에서는 피노키오와 관련된 다양한 조각품과 마리오네트 인형을 볼 수 있다.

4개의 설치미술 작품으로 꾸며진 현대미술 2관은 피노키오 박물관으로 이어 진다. 피노키오 박물관으로 향하는 원형 통로도 독특하다. 피노키오가 고래 배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형상화했다. 형형색색 움직이는 조명이 동심의 세계 로 안내한다. 피노키오 박물관에서는 피노키오와 관련된 다양한 조각품과 마 리오네트 인형을 볼 수 있다. 관람객이 다가가면 팔과 다리를 흔들어 몸을 움 직이는 '로봇 마리오네트'는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박물관 입구 체험학습실에서는 피노키오 마리오네트 공예, 나만의 오르골 색칠하기, 초콜 릿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해 볼 수 있다.









1하슬라아트월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돌벽 포토존. 주말이면 인증샷을 찍으려는 줄이 길게 늘어선다. 2 미술관 안팎의 독특한 조형물들이 눈길을 끈다. 3 은빛 파도를 형상화한 조형물 너머로 바다가 보인다.

피노키오 박물관에서 나오면 '파도의 길'로 이어진다. 푸른 바다와 하늘, 설치미술 작품이 어우러진 야외 공간이다. 비닐하우스에 쓰이는 은빛 쇠 파이프를 이어 만든 전망대의 난간이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솟구치는 파도처럼 보인다. 은빛 파도 너머로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에 저절로 탄성이 나온다. 파도의길 왼쪽에는 관람객들이 길게 줄지어 서있다. 하슬라아트월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돌벽 포토존이다. 바다를 향해 나있는 둥근 창 위에서 포즈를 취하면 '인생샷'을 건질 수 있다. 주말에는 한참을 기다려야 차례가 돌아온다고 한다.

